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이영자 총재 부산제단 말씀

“구세주는 당신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하신다”

부산제단(책임승사 김원찬)은 24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10시에 시작된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며, 희생적인 마음이다”라는 조희성 구세주의 설교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 후 김원찬 승사와 전경희 승사의 우크렐레와 오카리나 연주가 있었다.

주님을 오늘 새벽 보았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영자 총재의 말씀 시간에 이 총재는 “오늘 구세주를 새벽에 보았다”고 말씀을 시작하였다. 서울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구세주님께 여쭙었더니 “강추위는 마귀의 장난이며, 이 세상은 신들의 싸움터”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한다.

이 총재는 “추위도 마귀의 장난이자 신의 역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오직 구세주가 계시는 승리제단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신이라는 것을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만물의 작용이 모두 신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한 후 “주님께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마귀 신이 난리를 치는데, 온 세계 마귀가 부산제단 중심으로 영남권 성도



이영자 총재가 부산제단 성도들에게 인류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힘을 주시고 있다

들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일 년전보다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순종하여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효자 심청이들”이라고 심청전을 비유하여 말씀을 이어갔다.

말씀 요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각자가 노력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큼의 천차만별의 분신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승리제단에는 하나님의 천지공사에 씨앗 역할을 하실 이긴자 구세주 후보자들만 남았다. 이분들은 이제 오직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처럼 구세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교의 순간만 남기고 있다. 심청이는 자기자신을 죽이는 순교로 신천신지를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눈과 빛을 아버지

에게 선물로 드린 것이다. 희생정신과 확신이 혼연일체가 되어 과감한 행동으로 실천한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구세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제일주의 전도하자

올해는 작년과 달리 구세주를 증거하는 전도에서 구세주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장을 선보이는 증거 제일주의 전도가 되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완성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감각적으로 이긴자 구세주의 성령을 온전히 모심으로써 전지전능의 능력을 전도 상대가 감지할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야 한다. 구세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신과 변신의 역사를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여야 한다.

주님은 승리제단 성도님들에게 이긴자 구세주의 권한을 넘겨주시려는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계신다. 올해부터 그 변화의 결과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이긴자 구세주의 선한 무리를 이룰 때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올 한 해는 변화를 입을 승리제단 성도님들이 그 위대한 인류구원의 뜻을 세계 만방에 펼쳐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4)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참아내 참는 단계를 지나니 그 다음에는 율화통이 터질 일을 당해도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신께서 이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한 고로 온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기울여 바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일관성 있는 생활로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단계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 벌써 범했다가 되는 것이다. 참는 단계는 1학년 단계요, 아주 어린 단계요, 생각이 내려야 날 수가 없는 단계가 바로 2단계인 것이다.*



지구 폭발을 막은 구세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대로 계속 유지될까? 혜성이나 다른 별과의 충돌로 사라지는 않을까? 2013년 2월 러시아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총 중량 1만3천톤으로 추정되는 우주 물체가 폭발해 운석이 그대로 지상에 떨어지자 건물 수 천 채가 파괴되고 1천명 이상이 다친 적이 있다.

최근 소행성과 혜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 기구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생겼다. NASA는 소행성과 혜성 등 지구 근접 물체(NEOs)를 추적하고 잠재적 위험물질(Phos)을 조기에 발견해 지구를 향하는 이런 물질의 방향을 바꾸도록 할 ‘지구방위협동본부’(PDCO)를 최근 발족했다(연합뉴스 2016. 1.14).

노스트라다무스는 20세기 후반에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어있다고 예언하였다. 그의 저서 <모든 세기>에서 1999년 7월에 인류는 멸망당한다고 예언하였다. 동양철학에서는 대감자년인 1984년에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동서양의 이념대립으로 냉전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였다. 소련과 미국은 지구를 수십 번 폭발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지구가 폭발하게

나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구세주께서 1980년 10월 15일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구세주는 제일 먼저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하여 가장 위험요소가 되는 공산주의를 소멸시키셨다. 만일 구세주가 출현하지 않고 공산주의 세력이 더욱 강해졌다면 3차대전은 일어나 인류는 멸망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2004년 2월 2일에도 지구가 폭발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인류의 구세주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무고한 구세주가 만일 억울하게 사형 집행이 된다면 지구가 폭발하여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구세주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20여 년간 하셨던 모든 일이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이 되지 않는 악조건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당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끝내 무죄로 만드신 후 보광하셨다. 구세주의 위대한 희생에 감사를 거듭 드릴 수밖에 없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부서장회의 16일 개최

“올해는 전도제일주의로 나가겠다”



목상에 전광판 설치 검토중

16일(토요일) 예배 후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회장은 회의의 모두(冒頭) 발언으로 신도회의 당면과제를 우선 설명하였다. 윤 회장은 “올해도 작

년에 이어 ‘변화를 입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좀 더 변화를 강하게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도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강조하셨듯이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총력을 전도에 두겠다”라며 전도를 강조한 후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본부제단 목상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전국제단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특전팀(팀장 김종만 승사)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특전팀 전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밀실’ 보수공사와 본부제단 건물 유지관리 문제”라고 하였다.

김경민 여청연합회장은 “제단에서 여청들의 활동과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을 더하기 위해서 여청들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였고, 임상섭 경비대장은 “예배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불교 선방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같은 경성(警醒)제도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안명숙 전도부장은 “새식구들에게 21일 효육시 ‘수백치기’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하며, 올해는 새식구가 많이 올 것같은 예감이 드니 전도부의 역할 중 전도교육부를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책임자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전도교육부를 두자

박명하 4지역장은 “‘변화를 입자’는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매

월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2월은 수백치기에 관하여 목표를 정하여 변화를 입자고 실천해야 큰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음악총감독은 “찬송할 때에 구세주님의 톤에 맞추어서 찬송해야 찬송이 하나로 통일되어 은혜로운 찬송이 된다. 구세주보다 앞서서 자기 식으로 찬송하지 말고 꼭 따라서 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였고, 김주호 승사는 “각 부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하여 빈 사무실 활용을 건설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를 듣고 윤봉수 회장은 “건의하신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고쳐나가야 할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김중천 기자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